

현주간지 에센스 정오표

#정오표

현주간지 에센스 정오사항 전체를 올립니다.
이 정오표를 다운 받아 꼭 확인하시고 공부에 참고해 주시고,
코리안에듀 콘텐츠팀은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올바른 편집에 신경쓰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https://class.orbi.kr/teacher/181/question> 에 몇주차 교재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선생님에게 개별 문의가 있을 시에는
you@korean-edu.co.kr 로 문의 남겨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안에듀 대표 유현주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서울 한량 이춘풍은 아내가 모은 가산과 호조에서 빌린 돈을 밀천으로 평양에 장사하러 갔다가 기생 추월에게 빠져 그 돈을 주색잡기에 탕진한다.

춘풍이 이날부터 추월의 집 사환하는 일 생불여사(生不如死)*라 가련하다.

그렇저런 지낼 적에 토상(土狀) 바랑 현순백결(懸鶉百結)*로 이리저리 다닐 적에 거동 불작시면 종로의 상거지라. 조석 먹는 거동 보면 이 빠진 헌 사발에 누른 밥에 토장* 덩이 제격이라. 수저도 없이 뜰 아래나 부엌에서 먹는 거동 제 신세 스스로 생각하니 목이 메어 못 먹겠네. 주야로 한량들은 ㉠ 청산에 구름 모이듯 수륙재(水陸齋)*에 노승 모이듯 개성부에 장사 모이듯 추월의 집으로 몰려와서 온갖 희롱 다하면서 좋은 술 별 안주에 배반(杯盤)이 낭자하며 청가 일곡 화답하여 한창 이리 노닐 적에, 이때 춘풍 거동 보소.

뜰 아래서 방 안을 엿보니 ㉡ 눈에는 풍년이요 입에는 흉년이라. 제 신세를 생각하고 노래하되,

“세상사 가소롭다. 나도 경성 장부로 왈자 벗님 취담(醉談)하여 청루 미색 가무 중에 수만금을 허비하고 또 왜 시골 내려와서 주인을 작첩하여 불원상리(不願相離)하겠더니 이 지경이 되었으니 세상사 가소롭다.”

이때 엄동이라 일락서산(日落西山)하고 바람은 솔솔하고 월색은 조용한데,

“울고 가는 저 기력아, 내 진정을 들어 보고 내 고향에 전하여라. 우리 처자 그리워라, 나를 그리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리저리 생각하니 대장부 일촌간장 봄눈 슬듯 하는구나. 그런 정 저런 정 다 버리고 전에 하던 가사나 하여 보세.”

매화 타령* 한다.

㉢ “매화야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온다. 피업즉도 하다가는 백설이 분분하니 피지 말지. 어화 세상사 가소롭다.”

이때 추월의 방에 놀던 한량들이 노래를 듣고 의심하니 추월이 무색하여 하는 말이,

“내 집의 사환하는 놈이, 서울 이춘풍이라 하는 놈이 소리를 하니 신청치* 말소소서.”

한량들이 이 말 듣고 하는 말이,

“서울 산다 하니 불쌍하다.”

하고 술 한 잔 가득 부어 주니 춘풍이 갈지우갈(渴之又渴)*하여 받아먹으니 가련하더라.

[중략 줄거리] 남편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장으로 본모습을 감춘 채 평양 감사의 회계 비장이 된다.

비장이 이르되,

“호조에 관자하여 너를 죽이라 하였으되, 네가 먼저 죄를 알고 돈을 무수히 바치마 하니, 그런 고로 너를 살리나니 호조 돈을 자모지레*로 오천 냥을 바치라.”

하니 추월이 여쭙오되,

“십일 말미만 주시면 오천 냥을 바치리다.”

다짐 써 올리니, 춘풍과 추월을 형틀에서 내려놓고 춘풍더러 이르되,

“십일 이내에 오천 냥 받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 내가 유고하여 먼저 올라가니 뒤를 미쳐 올라와 집을 찾아오라.”

하니 춘풍이 황황하여 아뢰되,

“나오리 덕택으로 호조 돈을 다 수쇄하오니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서울 가서 댁에 먼저 문안하오리다.”

하고 여쭙더라.

비장이 사또께 여쭙되,

“추월 설치(雪恥)*하고 춘풍도 찾삼고 호조 돈도 수쇄하오니 은혜 감축 무지하온 중 소인 몸이 외람히 존중한 처소에 오래 있삼기 죄만하와 떠날 줄로 아뢰나이다.”

감사 그리히 여겨 허락하니, 이튿날 감사께 하직하고 상급한 돈 오만 냥을 환전 부쳐 놓고 떠나서 여러 날 만에 집에 와 돈하고 환전도 찾은 후 남북도 벗어 놓고 춘풍 오기 기다리더라.

이때 평양 비장으로 회계 비장을 겸하고 분부하여 추월 잡아들여 돈 오천 냥 바치라 하시니, 님 영이라 거역할까. 성화같이 재촉하여 불일(不日) 내에* 받아 가니, 춘풍이 비장 덕에 돈 받아 실어 놓고 갔, 망건, 의복 치레하여 은안 준마(銀鞍駿馬)* 높이 타고 경성을 올라와서 제 집을 찾아가니, 이때 춘풍의 처 문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소매 잡고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 “어이 그리 더디뎠고. 장사에 소망 얻어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새 잘 있던가.”

춘풍이 이십아리 돈을 여기저기 벌여 놓고 장사에 남긴 듯이 의기양양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주찬

을 소담히 차려 놓고,

“자시오.”

하니, ㉠ 저 잡늬 거동 보소. 없던 교태(驕態)* 지어
내어 제 아내 꾸짖으되,

“안주도 좋지 않고 술맛도 무미하다. 평양서는 좋은
안주로 매일 장취(長醉)하여 입맛이 높았으니 평양으
로 다시 가고 싶다. 아무래도 못 있겠다.”

[B]

젓가락도 그릇 박고 고기도 씹어 버리며 하는 말이,
“평양 일색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내더니,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프다. 호조 돈이나 다 셈
하고 약간 전량 소쇄하여 전 주인에게 환전 부치고 평
양으로 내려가서 작은집과 한가지로 음식을 먹으리
라.”

그 거동을 차마 못 볼러라.

- 작자 미상, 「이춘풍전」 -

* 생불여사: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함.

* 현순백결: 옷을 백 군데나 기웠다는 뜻으로, 누덕누덕 기워서 짧
아진 옷을 이르는 말.

* 토장: 된장.

* 수륙재: 불교에서 물과 육지에서 해매는 외로운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의식.

* 매화 타령: 12가사의 하나. '매화가'라고도 함.

* 신청치: 신경 쓰지.

* 갈지우갈: 목이 몹시 마름.

* 자모지례: 일년 간의 변리를 원금의 십분지이 이내로 정한 이율.

* 설치: 설욕.

* 불일 내에: 하루 안에.

* 은안 준마: 호사스럽게 꾸민 좋은 말.

* 교태: 교만한 태도.

28 뒷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춘풍은 자신의 형편이 서울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
해 추월의 집에 몸을 감추었다.
- ② 추월의 집에서 놀던 한량들은 노래에 대한 상으로 춘풍
에게 술을 나누어 주었다.
- ③ 형틀에서 풀려난 춘풍은 서울에 돌아가면 비장의 집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 ④ 춘풍의 아내는 추월의 돈을 받아 낸 후 춘풍과 함께 서
울 집으로 돌아왔다.
- ⑤ 아내가 차려 준 술상 앞에서 춘풍은 추월과 함께 나누
었던 소박한 밥상을 그리워한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비유적 표현을 나열하여 추월의 집 상황을 그려
내고 있다.
- ② ㉡: 대구와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춘풍의 불우한 처
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 널리 알려진 가사를 인용하여 춘풍의 심경을 나타
내고 있다.
- ④ ㉣: 겸양 표현을 사용하여 예상치 못한 만남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춘풍의 언행을 비판하고 있다.

30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와 달리 [A]에는 현세적 욕망을 초월하고자 하는 춘
풍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② [A]와 달리 [B]에는 자신이 처한 암담한 상황에 대한
춘풍의 좌절감이 드러나 있다.
- ③ [A]에서 춘풍은 서울에 대한 그리움을 지닌 것으로,
[B]에서는 평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 ④ [A]와 [B] 모두에는 자신의 과거 행실에 대한 춘풍의
후회가 담겨 있다.
- ⑤ [A]와 [B] 모두에서 춘풍은 독백을 통해 앞날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19 페이지 18번 문항 수정

18 (나)를 참고할 때, ㉠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②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③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④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 지향적이어서 장기적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인 결과에 치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⑤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90페이지 수정

39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늬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늬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② ‘바빳 곳 ㄴ’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되’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④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40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42 ㉢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부정적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